

HEADLINE NEWS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융자제도 도입 (오사카)

일반적으로 개개의 중소기업은 사채(社債) 발행에 의해 직접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오고 있다. 일본의 오사카市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다양화·원활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으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을 활용한 융자제도인 「오사카市 CLO」를 2003년에 도입한 바 있다.

이어 2004년에는 정령(政令) 지정도시인 오사카市, 고베市, 요코하마市가 연계해 「지역형 CLO」 융자제도를 일본 전역에서 최초로 도입,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市의 융자채권을 정리하여 증권화의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1개 기업당 증권화 비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차입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8/month/index.htm#month1)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그린빌딩' 건설 활성화 추진 (미국)
- ② 「관광도시 가꾸기 기본지침」 수립 (동경)
- ③ '스마트 성장' 홍보 웹사이트 운영 (워싱턴 D.C.)

도시환경

- ④ 야생동물 보호 위해 건물 옥상에 '녹색지붕' 조성 (런던)

도시교통

- ⑤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방식을 '스마트 카드' 방식으로 교체 추진 (일리노이州: 스프링필드市)
- ⑥ 대중교통정류장 인근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 대출 편의 제공 (오하이오州: 콜리블랜드市)
- ⑦ 휠체어 적재가 가능한 택시 운행 개시 (캘리포니아州 버클리市)
- ⑧ 택시 내에 승객 편의를 위한 첨단장비 설치 추진 (뉴욕)
- ⑨ 지역 특색이 나타나는 새로운 도로표지판 설치 (마이애미비치)
- ⑩ 노년층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해 교통표지판 정비 (위스콘신州: 매디슨市)
- ⑪ 텍사스 교통연구소의 「2004년 교통 이동성 연구보고서」 출간 (미국)

사회복지문화

- ⑫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복지계획」 수립 (요코하마)

행재정

- ⑬ 시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대 시청업무 확대 (요코하마)

① ‘그린빌딩’ 건설 활성화 추진 (미국)

최근 미국에서는 ‘그린빌딩(Green Building)’ 건설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의 인증을 받은 ‘그린빌딩’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극소수였지만, 최근 미국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그린빌딩’이 건설되었으며, 추가로 1,200개의 빌딩이 현재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인증절차는 그린빌딩위원회에서 만든 「LEED 그린빌딩평가체계(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reen Building Rating System)」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는 디자인, 에너지 소비, 내부공기의 질, 재활용된 건축 자재의 사용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www.tluc.net/enews/20040909-newsletter.html#is)

(www.usgbc.org/)

② 「관광도시 가꾸기 기본지침」 수립 (동경)

일본 東京都는 ‘관광마찌즈쿠리(관광도시 가꾸기)’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관광마찌즈쿠리 추진협의회’에서는 최근 「東京都 관광마찌즈쿠리 기본지침」을 수립했다. 이 지침은 都의 지역특성에 따라 5개의 ‘관광마찌즈쿠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관광도시 가꾸기를 위해 도움이 되는 각종 절차 및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관한 ‘관광마찌즈쿠리 매뉴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www.koho.metro.tokyo.jp/koho/2004/07/kiji/kankou.htm)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③ ‘스마트 성장’ 홍보 웹사이트 운영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대도시권 위원회(The 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s)’는 ‘스마트 성장’에 대한 지자체 계획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스마트 성장’의 기본원리에 대한 자료와, 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11분짜리 동영상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시가 이러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동안 ‘스마트 성장’에 대해 대도시권 위원회의 지역계획정책(Regional Planning Policy)과 주민들간의 이해가 서로 엇갈려 왔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스마트 성장’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5885-2004Sep8.html)

(www.mwcog.org/planning/planning/smartgrowth/)

④ 야생동물 보호 위해 건물 옥상에 ‘녹색지붕’ 조성 (런던)

최근 영국 런던시는 건물 설계시 건물 옥상에 ‘녹색지붕(Green Roofing)’을 조성할 것을 시민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녹색지붕’은 지붕 위를 흙으로 덮어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도마뱀, 곤충, 새 등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에서 ‘녹색지붕’ 프로그램은 도시환경의 아이콘이 된 검정색 딱새(Black Redstart)가 도시에서 멸종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녹색지붕’은 일찍이 스위스에서 건물의 냉난방 조절, 홍수 조절,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며, 유럽에서는 현재 지붕 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심지어 노상주차장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www.planetizen.com/news/item.php?id=14311)

5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방식을 ‘스마트 카드’ 방식으로 교체 추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市)

미국 일리노이주는 관내 모든 유료도로의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방식을 ‘스마트 카드’ 방식으로 전격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계획은 53억 달러 규모의 유료도로시스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통행료 징수 방식을 「I-PASS(주의 ‘스마트 카드’ 명칭)」로 단일화하고, 현금 지불시 발생했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는 이 계획에 따라 기존 톨게이트의 요금 징수대를 없애고 아치형의 「I-PASS」 전자요금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지불하는 차량은 도로 바깥쪽의 요금 징수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요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www.sj-r.com/sections/news/stories/33930.asp#)

6 대중교통정류장 인근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 대출 편의 제공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市)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대도시권의 대중교통 운영을 담당하는 ‘RTA (The Greater Cleveland Regional Transit Authority)’는 지역내 금융기관의 협력 하에 버스정류장 혹은 철도역 인근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5,000~10,000달러의 추가 대출을 허용하는 「Smart Commute」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가 2대 이상의 차를 보유 하면 안되며, 구입하려는 주택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400m, 철도역으로부터 약 800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RTA’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책으로 해당 가구 내 근로자에게 3개월간 대중교통 무료승차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www.cleveland.com/news/plaindealer/compass/index.ssf?/base/cuyahoga/109031601356640.xml)

7 휠체어 적재가 가능한 택시 운행 개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서는 최근 휠체어 적재가 가능한 택시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이 택시는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하는 장애인의 통행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 수준은 일반 택시와 동일하다.

시는 이러한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2003년에 택시사업 규정을 수정하여 휠체어 적재가 가능한 택시에 대한 면허를 허용했으며, 현재 시에서는 3대의 택시가 이 면허를 보유하여 운행중이다. 또한, 시는 장애인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안전교육 등의 특별 훈련을 의무화했다.

(www.ci.berkeley.ca.us/news/2004/08Aug/083004WheelchairTaxis.html)

8 택시 내에 승객 편의를 위한 첨단장비 설치 추진 (뉴욕)

미국 뉴욕시의 '택시와 리무진 운영위원회(TLC;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는 택시 내에 승객 편의를 위한 첨단장치 설치를 최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치 예정중인 장치는 GPS 단말기, 신용카드기기, 문자메시지 제공장비 및 전자도면 등이다. 이 중 GPS 및 전자도면 등을 통해 승객들은 자신의 이동경로 및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TLC는 2005년 11월까지 완료 예정인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별 택시회사에 이들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TLC는 이러한 편익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26%의 요금 인상안을 2004년 3월에 이미 승인한 바 있다.

(www.nypost.com/news/regionalnews/24281.htm)

9 지역 특색이 나타나는 새로운 도로표지판 설치 (마이애미비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시는 기존의 도로표지판을 지역 특색이 나타나는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최근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변 관광지라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교통표지판을 물결무늬 등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색채도 초록색 및 파랑색 계통의 밝은 색상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방문객들이 주요 방문지를 찾기 쉽게 도와주는 도로 표지판 설치와 함께, 방문객에게 지역 특색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1천6백만달러를 투입하여 2005년 봄까지 표지판 대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주차 및 도로 안내 표지판, 보행자 관련 표지판을 교체하고, 추가로 지역 안내 지도 등을 가로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교통표지판 설치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덴버시 및 필라델피아시는 이러한 유형의 교통표지판을 이미 설치하여 사용중이다.

(www.miami.com/mld/miamiherald/news/local/states/florida/counties/miami-dade/cities_neighborhoods/beaches/9369680.htm?1c)

10 노년층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해 교통표지판 정비 (위스콘신주: 매디슨시)

미국 위스콘신주는 노년층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해 「교통표지판 시인성 향상 프로젝트」를 주전역에 걸쳐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천8백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음주운전 적발을 위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등과 함께 공공안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주정부와 하위 지방정부간의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련사업의 소요예산을 주정부가 75%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형 교통안내 표지판으로의 교체, 글씨체 교체 및 정비, 노면 표시색의 밝은색으로의 교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www.dot.wisconsin.gov/news/news/2004general/opa-trafficawards174.htm)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④ 텍사스 교통연구소의 「2004년 교통 이동성 연구보고서」 출간 (미국)

미국의 텍사스 교통연구소(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는 「2004년 교통 이동성(mobility) 연구보고서」를 최근 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도시에서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대중교통수단과 기존도로의 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기존도로와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 그리고 토지이용과의 다양한 연계를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이용 가능하다.

(mobility.tamu.edu/ums/)

④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복지계획」 수립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 중에서 市 전체의 지역복지계획은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이념 및 區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市가 해야 할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첫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둘째,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는 체계 정립, 셋째, 복지에 연관된 인재의 육성이며, 市는 이를 위해 현재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66/001-2.html)

시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대 시청업무 확대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대(낮 12시~13시)에도 시민으로부터 신청 및 문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전문적인 안건과 담당직원에 의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확대시책에 따라 구청에서는 점심시간대에 전체 과에서 창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청의 위생국 의료안전과에서는 의료에 관한 상담 등을, 각 수도 영업소에서는 수도요금 및 수선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66/001-3.html)